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고난주일(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절제하는 주간입니다.
 - 1) 개인의 형편에 따라 매일 한 끼, 또는 하루 이상 금식하십시오.
 - 2) 정해진 시간에 성서일기쓰기와 개인기도(연속기도)에 힘쓰십시오.
 - 3) 아침기도회를 오전 6시에 대면으로 전환하여 모입니다.
 - 4) 세족목요일예배를 14일(목) 오후 8시에 성찬식과 함께 드립니다.
 - 5) 생활공동체에서 토요일(16일)에 환경정리를 합니다.
-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28차 정기회의가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민들레 공동체에서 부활절을 축하하며 많은 계란을 보내주셨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윤혜교 (생일 감사)
권재만 목사, 차태욱 사모, 권하민, 하온, 하성 가정(종려주일)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15 호
2022년 4월 1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어느덧 사순절의 마지막 구간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또는 종려 주일로 부르는 날입니다. 교육관 벽에 첫 그림이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새삼 햇볕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시간이 빨리 지나갔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림이 걸렸던 이번 주간엔, 멧쟁이학교에서 점심을 먹다가 문득 밥을 한가득 물고 시선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들이 그림 속에 담겨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떠올려보다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현재에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혼자 식사했다라면 핸드폰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삶의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되곤 합니다. 그만큼 사회성이 높고 주변과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로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나온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처음엔 깨진 유리창 하나라도 고치지 않고 놔두게 된다면, 사람들은 다른 유리창이 깨지는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환경은 점점 더 심각하고 무질서하게 변해갈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론을 토대로 범죄의 온상이었던 뉴욕에서는 장장 5년에 걸쳐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고 약한 경범죄 단속에 힘썼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뉴욕시는 지하철 범죄의 4분의 3이 줄어드는 커다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얻은 것에는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환경에 대한 사람의 민감함을 알려주는, 그리고 작은 것도 커다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엔 삶 속에서 절제를 실행하며 지내도록 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식이 있습니다.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즐거움을 멈추고 회개하고 묵상하며 선행을 할 것을 강권합니다. 익숙하게 지

내고 있던 자신의 생활과 환경을 바꾸는 이 모습들은 초기 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 중 하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온 교회와 신앙공동체들이 이 전통을 지켜온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되새기고 경건을 훈련하며,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위로를 받고, 십자가를 향하셨던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선배 중에서는 아예 예수님의 부활에 맞추어 세례를 받으려 하면서, 사순절을 준비기간으로 보낸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과 훈련을 받으셨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 기간에 강도 높게 경건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는 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겂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어린 나귀 앞에 깔고 환영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의 호산나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 호칭하며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중에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인이 나귀를 내어주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대중들은 자신의 신분과 형편을 나타내 보이는 겂옷을 바닥에 깔며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발걸음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니다.

2천 년 전 백성들이 자신들을 주님의 발밑에 깔고 그들의 진정한 왕을 맞이한 것처럼, 고난에 동참하는 이 기간에 주님을 감사로 환영합시다. 시간, 재물, 마음 등 한정된 것들을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구할 때입니다. 주님을 향한 생활 환경의 작은 변화가, 개인을 비롯한 공동체에도 은혜를 더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고난 길에 순종하여 가신 분을,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을,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분을 묵상합시다. 이번 주간동안, 사랑방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커다란 은혜를 풍족하게 받으며 기쁨으로 가득한 나날들로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감람산의 주님

한주간 말씀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요한복음 15장 12~27절
 제목 :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43 144 452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2~17절 너희는 내가 친구로 택하여 삼았다. 서로 사랑하여라
 반복: 너희 13번, 내(나) 10번, 사랑 4번, 친구 3번, 명하다 3번, 열매 2번

18~2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반복: 내(나) 15번, 너희 13번, 그들 10번, 세상 7번, 미워하였다. 7번, 보혜사, 증언

2. 내용의 의미(Why)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인데, 이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온전한 성품이며,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롬 6장)입니다. 세상으로 표현되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믿는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말을 들어주소서.
 저희를 도우시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게 하소서.
 감람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신 주님
 그것을 저희에게도 가르치소서.
 감람산에서 번민에 휩싸여 있을 때 기도로써 인내하신 주님
 그것을 저희에게 가르치소서.
 감람산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 자세
 그것을 저희에게 가르치소서.

회개와 개과(改過)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소서.
 저희 고난이 주님의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저희 죄에 대해 주님이 느끼시는 혐오감을 저희 마음에 채우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버림받을 때 주님께서 보이셨던 힘과 인내를 저희에게 주소서.
 저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 보여 주신 용기를 주소서.
 저희의 임종의 시간에 주님의 위로의 천사를 보내소서.
 감람산에 있는 동안, 항상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약하고 낙심될 때 기도하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과 입술에 '아버지'라는 말을 새겨 넣으소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시요 준엄한 재판관이시며
 이해할 수도, 근접할 수도 없는 하나님임을 느낄 때
 특별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말을 들어주소서.

칼 라너. [사권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이사야 53 : 4-6 인도자
25 다함께
 인도자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갈라디아서 5 : 1 인도자
 다함께
143, 145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십시오 ” 정재훈 목사

마태복음 21 : 1 - 11 설교자
146 공동체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150 다함께
 인도자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조장희 이재신 / 봉헌위원 : 한대훈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은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저희를 위해서 몸소 고난받으신 주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영광 받으신 주님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십시오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시켜서 미리 준비된 새끼 나귀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환영의 인파는 대단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실 때까지, 행진의 분위기는 더 고조되었습니다. 성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이 소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차에 관심을 보였으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은 처음에는 호산나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자기 뜻에 맞는 메시아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쫓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이윤희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깨끗이 청소된 자연예배당에 꾸러기들이 들어 옵니다. 공방에서 새로 만들어 주신 원목 사물함에 가방을 정리합니다. 다 모이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연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오늘을 감사드리며 하루의 평화를 바라며 전쟁과 질병으로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소리를 모으며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참쌀을 불려 동네 방앗간에 다녀옵니다. 꾸러기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인심 좋은 사장님은 공임보다 비싼 잣엿을 선물로 주십니다. 숲에서 마당에서 진달래, 양지꽃, 제비꽃, 쑥 등을 모아옵니다. 작은 손으로 동글동글 반죽을 빚고 꽃을 얹어 꽃전을 만듭니다. 꾸러기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다섯 배는 되어보이는 꽃전을 만드느라 버거웠지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공동체학교 선생님들과 마당에서 마주친 여러 어른들, 그루터기에서 코로나로 격리 중인 식구들까지 골고루 나누어 드리고나서 꾸러기들도 나누어 먹어봅니다.

올해에는 한 달에 두 번 어린이학교 형, 언니들이 두세 명씩 꾸러기에 놀러와 줍니다. 그네도 밀어주고 이불썰매도 태워주고 술래잡기, 숨바꼭질, 종이접기도 함께하고 꾸러기들의 여러 놀이에도 참여해줍니다. 친구가 적은 꾸러기들에게 누나들 오빠들이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번주에 놀러온 선배들은 꾸러기들이 통과하도록 훌라후프를 들고 돌리고 흔들며 터널을 만들어주고 병원놀이에 환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실뜨기도 함께하고 그림책도 읽어주었습니다. 아직 어린 선배들이 꾸러기들 앞에서 나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함께하며 눈높이를 맞추고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 제법 의젓해 보입니다. 꾸러기들은 한 명 한 명 어린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갑니다.<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사랑방공동체학교는 매년 4월 첫 주 월요일을 개교기념일로 기념하며 휴업합니다. 올 해는 사랑방공동체학교가 개교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월요일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은 가정에 흩어져 지냈지만 모두가 지

금까지 학교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돌아보는 시간으로 지냈습니다.

어린이학교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3~6학년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2~3주 동안 깊이있게 공부하는 주제탐험 수업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된 주제탐험의 주제는 글씨체습관 입니다. 요즘은 어린이들도 핸드폰과 타블릿, 컴퓨터 등 개인 미디어 기기를 많이 사용하며 글씨를 손으로 쓰기 보다는 기계로 적성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손으로 적는 직접 쓰는 글씨는 좀처럼 정성이 들여지지 않게됨을 봅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우리의 한글을 예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도 막바지 코로나 확진 받은 어린이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워하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아픈 친구들은 없고 모두 잘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따뜻함과 시원함, 다채로워지는 앞마당과 뒷산의 모습에 봄이 온 것에 실감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월요일은 사랑방 공동체 학교 30주년 개교기념일로 멋쟁이학교는 월요일 저녁에 등교하여서 지난주엔 4일간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에는 봄맞이 구충제도 복용하였고, 목요일 열린 수업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도보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코펠과 버너, 텐트, 가스 등을 점검하고 모뎀별로 텐트 치기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09일 토요일에는 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3학년, 5학년, 그리고 6학년 멋쟁이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 ☺

다음주는 고난주간으로 멋쟁이들은 자치회를 통해 다음 한 주간 동안 오전 금식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멋쟁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 교사 : 박예나 >

마음 먹여주는 선생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코로나-19를 피할 수 없었고, 자가격리를 충분히 즐겼습니다. 걱정해 주신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증상이 미미했고, 후유증도 크지 않아 지금은 아주 멀쩡하답니다~

사랑방공동체에 온 지도 벌써 3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2020년, 공동체에서의 첫해는 요즘 말로 '순삭', 순간 삭제된 듯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로 제약이 컸던 1년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현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 저는 아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공동체생활, 멋쟁이학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새로운 환경과 주어진 일에 적응하며 사계절의 변화도 느낄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멋쟁이 교사 1년 차 때는 확실히 서툰 점이 많았습니다. 척하면 착! 일을 해결하시는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확신이 없어서 주변 선생님들을 귀찮게 하거나 어떤 날은 교학년 멋쟁이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서툴렀던 것은 반응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멋쟁이들의 말에 반응했지만, 어느새 '영혼 없는 선생님'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차가 된 지금은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 공감을 잘해주면 오히려 낯설어합니다.

약 2년째 멋쟁이 여자 외부 숙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 멋쟁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 하루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기 전 이불 위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한 멋쟁이가 "선생님 저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3초에 안에 잘 수 있어요~"라고 하길래 제가 "빨리 마음먹자~ 자야지. 내가 마음 먹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잠자리에 든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장난치듯 던진 말이지만, 문득 정말 마음을 먹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할 땐 담대한 마음을, 자신감이 필요할 땐 신뢰의 마음을, 뿐만 아니라 각 멋쟁이들에게 필요한 마음을 먹여 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영혼 없는 선생님이 아닌 마음 먹여주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성아 청년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에베소서 1장 15-19절

인 도 : 권재만 목사

기 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세계의 흩어져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남은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여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던 것을 버리고 사랑하도록,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부활절 전에 끝이 나도록 기도합니다.
-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 마음교회를 위한 기도>
 - (1) 교회 가족들이 헌신하는 MCC, KAC, 평화 저널 등 메노나이트 평화 영성사역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 (2) 교회 공동체 내 젊은 청년들이 분열과 갈등, 미래의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 (3) 올해 안으로 현역에서 퇴직하고 인생 3막을 시작하려는 1세대 리더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균형있는 믿음생활, 건강하고 활기찬 아름다운 노년 생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 총회를 위해, 공동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고난주간을 통해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봄 기운이 가득하여 목련까지도 하얀 꽃 세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일교차가 큰 날씨여서 공동체 식구 모두 건강에 많이 주의를 기울이며 생활했습니다.

그간 쌓였던 낙엽을 계속 모아 태우기도 하고 밭에 뿌리기도 하면서 주변을 정리하였습니다. 묵은 낙엽을 치우니 봄 새싹들이 더욱 힘차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밭에 작물을 심기 위해 돌도 줍고 비료도 뿌려주고 흙도 뒤집어 주면서 공동체의 먹을거리를 기를 기대감에 다들 신났습니다.

격리를 마치고 속속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공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